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미쳐야 하는가?

성경말씀: 롬1:14-17

2019년이 시작되었다. 대개 신년 설교, 평안한 새해, 영육이 건강한 새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롭게 뛰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새해
오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생각함. 목사의 가장 큰 책무: 구원과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새해 벽두에 오늘은 우리가 늘 접하는 두 단어를 설명하려 한다. < > 복음, 구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듣기 바란다. 특히 어르신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20년 정도 복음 사역, 멀리 로마에도 가기 원함
이유(11-12), 가기 원하였으나 지금은 갈 수 없으므로 일단 편지를 보냄(13)
나의 사명: 나는 빛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14), 무슨 빛을 쬐는가? 복음의 빛(15)

바울의 과거

유대교에 열심을 낸, 바리새인, 구약성경에 정통함,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함,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극도로 혐오, 죽이기까지 함
그런데 행9장,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직접 주님이 나타남,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됨, 구원받음
그 이후 죽을 때까지 복음의 빛진 자가 되어 복음 선포, 구원, 교회를 세움
말 그대로 그는 복음으로 인해 미친 사람이 되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

사도행전 26장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 증언

증언 내용: 복음(행26:17-18), 핵심(22-23),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들의 말(24), 미쳤다. 바울(25), 아그립바에게(26-27), 아그립바(28), 바울의 위대한 증언(29)

왜 바울은 미쳤는가?

바울은 열심을 낸 사람이다. 육신적 스펙으로 보면 훌륭하다(빌3:4-6).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였기에
이 모든 일을 함,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죽으면 큰 문제 발생,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 왜? 복음을 알지 못하므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롬10:1-3).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원함(15)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총 96회(신약에만 마4:23, 계14:6), 복된 소식,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것

왜 복된 소식인가? 복을 주기 때문이다. 어떤 복? 누구에게?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알려주는 총체적 시스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복된
소식

1. 성경의 하나님

a. 창조자시이다(창1:1).

b.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창조물

c.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창1:26-27): 유일하다(지정의). 특별한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Good, 창1:31).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2. 그런데 선한 창조 세상에 마귀를 통해 죄가 들어 왔다.

a.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의지대로 살기를 원함

b.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다.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게 함, 죄

c.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짐

d.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됨, 과녁을 벗어났다(롬3:23). 이것이 죄이다.

e.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 죄 가운데서 수태되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존재

3. 문제: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는 불멸이 포함된다.
- a.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원무궁토록 산다. 육신은 죽지만 사람 자체는 불멸
 - b. 죄 가운데 죽으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 지옥(마25:41)
 - c. 예수님은 지옥을 만든 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분(마10:28; 막9:43-48)
4. 진짜 더 큰 문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선한 분, 공의로운 분, 거룩한 분
- a. 이게 사람에게 치명타이다. 왜? 하나님이 죄 있는 자에게 형벌을 주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받아주는 일은 이 세상에서도 없다. 모르면 넘어가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
 - b.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 그 결과: 의로운 사람은 없다(롬3:10-12).
5.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울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신다. 하나님의 또다른 속성
그러므로 자신의 공의를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마귀와의 싸움, 천사들의 문제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6.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 없이 모든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한다. 공의 만족
동시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완벽한 희생 예물 필요
6. 복음은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이루신 일을 알리는 복된 소식
기독교 복음 특징: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엡 2:8-9)
우주 공간에는 단번 희생 예물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천사 불가능, 인간 불가능, 죄 없는 짐승 가능 그러나 불완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한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요1:29)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유일한 방법
바로 그 순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였다. 그분이 죄가 되셨다.
겻세마네 기도,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마26:39).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슨 잔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요19:30 ,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잔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분에게 쏟아부어졌다. 100%, 지옥 형벌을 다 담당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의 절규(마27:46), 죄가 되시자 그 순간 아버지가 그분을 외면함,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한 것은 그때 한 순간밖에 없음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성취, 하나님의 사랑 성취,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좋아했으나 하나님께서 최종 일격을 가하심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부활의 몸을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고전15:1-4).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롬1:16).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마1:21). 예수라는 이름

이 구원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파워로만 된다(16).

복음이 그 파워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안 된다. 복음만으로 된다.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그러면 의인이 된다(17). 행위 의인이 아니라 믿음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천국에 가 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요5:24; 요일5).

한 번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봉인하셨다(엡4:30).

어떻게 아는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통해

구원은 생명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

믿음, 거룩한 삶, 지식과 지혜에서, 은혜에서

그 결과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진다.

이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총체적 진리를 알게 된다.

결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날이 있어야 한다.

“가 봐야 아는 것 아니다. 지금 알 수 있다.”

성경 말씀대로(롬10:9-10)

오늘 복음과 구원을 설명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꼼꼼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히12:28-29; 2:3).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분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

탐구하기 바란다.

구원 이후 복음의 빛진 자, 갇아야 한다. 갇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